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최주만 의원, 전주시 청소행정 잦은 수거체계 변경
전윤미 의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조직 혁신 요구
박형배 의원, 공동주택지원부분 도덕적 해이 심각
온혜정 의원,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



최주만 의원 전윤미 의원 박형배 의원 온혜정 의원

전주시의회가 19일 전주시 소관 부서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먼저, 최주만 의원(동서화, 서서화, 평화1·2동)은 최근 잦은 청소행정 잦은 수거체계 변경에 대하여 정상적 청소행정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정상 수거체계, 2023년 7월 권역 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번 씩 바뀌며,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으며 오히려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 8월 수거변경체계는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하여 불평 민원이 6만 여건에 달하였다. 지역쪽은 소형 차를 갖추지 못하여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시민, 환경관리원 및 대행업체 등 모두가 불만족인 청소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수거체계가 빠르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인력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효자 2, 3, 4동)은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신입 원장 체제 아래 조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은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광역사업이 이관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져 진흥원의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영상산업이 진흥원의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 점을 언급하며, 전주시 글로벌 영화·영상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진흥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조직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신입 원장의 중요한 과제"라며 "신입 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화합을 이루고,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주민참여 사업, 공동주택지원부분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노후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

한다고 되어있으나, 올해 주민참여 사업은 20년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상 고급아파트에도 지원되었다.

예산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내용에서도 모질설치, 수목전지 및 식재사업 등 전북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맞지 않은 사업도 진행되었고 자기수선 총담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정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다.

박 의원은 "전북도 심사권한을 전주시에 이양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하며, 장기수선 총담금에 대한 예산 배정 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주택 규모 이상 고급아파트 지원금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우야1·2, 호성동)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화학성, 유해성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전용용기를 통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이다.

2024년 6월 기준 전주시는 의료폐기물 1,38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 중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86개소이다.

최근 전주시 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위법한 정황이 포착되어 전주시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조사와 제보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한 것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크게 위협받는 것과 같다"며 "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전주조사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계획을 재검토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했을때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옥기 기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전주시, 기존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로 확대 추진

전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이상의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최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기존의 연령 구분이 폐지되고, 기존 공납포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본인 이 전액 부담하던 시술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63-281-6281,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 063-281-86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5번째 수소충전소 개소

'호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식 가져

전주시 북부권 송천동과 남부권 평화동, 서부권 삼천동, 동남부권 색장동에 이어 전주지역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가 송천동에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9일 덕진구 송천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

호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는 호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구축사업을 맡아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국·민간 포함 약 150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다.

호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하루 130대 정도의 수소 시내버스가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 판매가격은 1kg당 1만1000원이다.

시는 이번 호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으로 전주 북부권에 거주

하는 시민들과 원주·익산 방면 수소 시내버스의 충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에서는 현재 전 북개발공사와 민간기업인 SK플러그하이비스가 각각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두 개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총 7개소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는 현재 10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도시 곳곳에 확충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수소시회의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센터)는 19일 전주지역 10개 초·중학교 교장들과 함께 '2024년 전주시 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학교지원단은 전주시 청소년안전망과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의 협조 관계를 형성해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과 같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주지역 학교로 구성된 조직으로,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장을 학교지원단으로 위촉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터넷 집단 상담 등 전주시 청소년안전망과 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25년 청소년안전

망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살·자해·폭력 피해 등 위기 요인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전주지역 36개 학교와 연계해 △전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심리프로그램: 마음토닥(스트레스 관리)' 집단 상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군 8가지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학습 동기 강화프로그램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건강한 사용조절을 위한 집단 상담 등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일 전주지역 10개 초·중학교 교장들과 함께 '2024년 전주시 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김진덕 학교지원단장(송남중교장)은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학교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근 학교에 청소년안전망 정보제공을 통해 학교지원단으로서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화교회·삼천2동 해바라기봉사단, 김장김치 나눔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해바라기 봉사단(회장 우수연)은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한화교회(김창무 목사)와 삼천2동 해바라기 봉사단은 2024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밀

리찬 봉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우수연 회장은 "김장을 담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맛있게 김치를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